

목포시, '목포낭만콜' 등 시민 편의 앱 '호응'

목포낭만콜, 갈수록 이용객 증가...브랜드 콜택시로 자리매김 통합관광 정보 시스템·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등 연내 서비스

목포시가 모바일 앱 '목포 낭만콜' 등 시민의 삶 속에서 손쉽게 접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는 온라인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해상풍력으로 대변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산식품 산업, 관광산업 등 3대 미래전략산업과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3+1' 전략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3+1'을 앞세워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도 하나둘씩 마무리되면서 시민들의 손길을 사로잡고 있다.

우선 시는 리틀야구장·목재 문화체험장·반려 동물놀이터 등을 개장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뒷받침할 시설들을 확충하고 울도에 수돗물을 공급하며 식수난을 해소했다.

이처럼 인프라와 관련된 하드웨어적 사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업들도 시민 편의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목포 브랜드 콜택시인 '목포 낭만콜'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별도 콜센터 운영으로 인한 이중 배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편의도 향상시키며 호응

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콜 멈춤 현상 수정, 콜사인 시간 변경을 통한 배차 속도 향상 등 시스템을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

낭만콜은 앱 사용이 간편하고 배차도 신속해 이용객 대기 시간이 짧고 다른 택시앱과는 다르게 전화로도 호출이 가능해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어르신, 중장년층에게도 인기가 많다.

운영 첫 달인 2020년 11월 1만2628건 호출을 시작으로 2021년 5월에는 7만6875건, 2021년 9월 말 11만5701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총 70만6372건이 호출돼 목포의 대표 브랜드 콜택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대형폐기물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형폐기물 간편 결제 서비스 운영업체인 (주)갑다(대표이사 고재성)와 모바일 앱 '빠기'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형폐기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 후 배출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



목포시 통합관광정보시스템 앱.

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 가치가 있는 대형폐기물은 중고로도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앱도 마련된다.

시는 지난해 관광객 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합관광 정보 제공 시스템',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등 2개의 스마트 관광 안내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올해 안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합관광 정보 제공 시스템'은 목포 관광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플랫폼이다.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 공연주차장, 공연화장실 등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4개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번역 시스템이 탑재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을 지원한다.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은 근대역사거리, 유달산, 옥대이길, 문화길 등 주요 관광지를 4개 언어로 해설하는 플랫폼이다. 스마트폰으로 문자, 증강현실, 동영상, 음성 등을 제공받아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직접 듣는 것처럼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스마트폰이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뒷받침할 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면서 "앱 서비스들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개테마파크 연중 무료 개방한다



진도군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진도개테마파크 내에 있는 시설 등을 연중 무료 개방한다.

진도군은 주말 'Dog 스포츠 어질리티'와 달리기 시설, 진도개 사육실,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장을 애견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진도개테마파크 내 진도개홍보관에서 주말 어울마당까지 국화꽃 공원이 조성돼 반려견과 함께 사진도 찍고 편안하게 산책하며 추억을 만들고 힐링할 수 있다.

150m 트랙 달리기장과 어질리티 시설을 이용, 반려견과 간단한 교감 활동도 할 수 있다.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장에서 가벼운 공놀이, 원반던지기 등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서 반려견과 반려견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맞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산책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펫티켓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대붕감 따기 봉사

현대삼호중공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 농촌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중공업 1% 나눔재단은 지난 6일 영암군 금정면에서 대붕감 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현대삼호중공업 김형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90여명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후원으로 마을회관 싱크대 교체와 전등 수리 등 마을 정비 작업도 진행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은 1300만원 상당의 대붕감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뜻이 진짜 친구다"며 "지역과 상생발전 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행정정보공개 체계 정비 분야별 600여종 정보 사전 공개

군민 알권리 보장·정보 투명 제공

무안군이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유용한 정보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 행정정보공개 체계를 정비한다.

무안군은 우선 행정정보공개 체계인 사전정보공개 지표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전정보공개 제도는 군에 공금한 사항을 정보 공개로 청구하기 전에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군은 현재 보유관리 하고 있는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 현황 등 실질적으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600여 종의 정보를 정비해 군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 체계 정비를 통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접근이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민원서비스 만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해남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예타 조사 확정

해남군에 들어서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앞으로 약 1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센터는 총 4천79억원이 투입되는 국책기관으로 2025년까지 해남군 삼산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9월 농식품부 최종 평가 결과 전남 해남군으로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곧바로 예비타당성 조

사를 신청했다. 군은 전남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군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해 센터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건축과 토목, 전기, 통신 분야의 설립지원단도 구성해 공사 전반을 지원 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농협, 농자재 지원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대과 수급 조절 계약재배 간담회

신안농협이 인력과 농자재 지원에 적극 나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농협은 최근 겨울대과 출하를 앞두고 고 품질 상품화를 위해 지역 대과계약재배 230여 농가를 대상으로 62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영양제) 전달했다. 앞서 신안농협은 지난 달에도 신소득 작목 및 지역작목 유통활성화를 위해 전자저울 214대를 지원했다.

또 신안농협은 2020년산 대과가격 폭등으로 인해 대과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 올해도 작황 호조로 출하가 가격 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9

월 가격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생산비절감, 품질 개선을 목표로 대과계약재배 간담회를 갖고 채소수급 안정사업 계약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노령인구와 농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농협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소득 증대에 큰 힘을 얻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동치 조합장은 "대과와 땅콩의 순환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땅콩작목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체계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